

2008년 7월 31일 말씀

회사 다니면서 섭리도 뛰어야 합니다. 한 가지 갖고는 재미가 없어서 못 삽니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죽어납니다. 앉아만 있어 보십시오. 답답해서 죽습니다. 아무리 편하게 앉아 있어도 조금 가면 금방 다리가 저려서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갔다가 금방 또 오고, 있다가 또 금방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몇 가지를 해나가도 하십시오. 나도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수 십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잘 가고 좋습니다. 인생은 사는 법이 있습니다. 축구도 하는 법이 있고 배구도 하는 법이 있듯 인생도 사는 법이 있습니다. 꼭 배워야 합니다. 안 배우면 못합니다. 배워서 하면 전혀 다릅니다. 내가 기도해 주고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해 준 것을 꼭 받아야 합니다. 내가 뭘 주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옛날과 다릅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 빨리 철수 하라고 했습니다. 벌써 앞날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기회를 못 봅니다. 잘 판단해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한국은 밀어 붙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해외는 가끔 한 번씩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오면 됩니다. 그 나라에 계속 있으면 애들이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있다가 없으면 정신 못 차리고 자기네들이 막 뺏니다. 한국은 지금 인원이 불어나고 있으니 한국에 집중해서 뛰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하니 한국만 300명씩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일순간에 그렇게 많이 온 것입니다. 이들만 관리해도 그 일이 엄청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인원인 것입니다. 청중이 모이니깐 순간 뒤쳐지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청중이 어디로 가든지 뒤쳐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잘 챙겨주고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능한 것입니다. 중국어 통역 공부하는 앞으로 별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국으로 안가고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에 있음으로 청중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금년도도 비행기로 10대정도 올 것입니다. 몇 년 안에 50개국에서 만 명씩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에 좋은 곳이 많이 있어도 지도자를 따라 오기 때문입니다. 이 길 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들 결심하고 돌아다녀도 순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신경 쓰면 이가 아플 정도이니 두통은 얼마나 아프고 삭신이 쭈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신경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진주’ 라는 시를 멋있게 썼습니다. 다 외워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몸부림 속에서 지으니 걸작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쓴 것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는 하루에 10개씩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 밖에 못 외었습니다. 너무 엄청나게 와서 다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다시 확대시켜 한개 가지고 10개 20개씩 만들어서 썼습니다. 앞날을 보고 미리 쓴 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감입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무조건 이름도 모르는데 10년 전에 공항에서 스친 사람까지도 기도해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문에 수고들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신경 많이 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 ‘사명 자들 빨리 뛰어들고, 재능 자들 빨리 뛰어들라’ 고 했습니다. 재능 안 쓰면 없어진다고 빨리 뛰어들라고 했습니다. 재능 자가 나타나면 수 만 명이 움직입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재능 자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방송국도 재능 자 데려다 쓰니까 한 민족을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너 가 가서 배워야 한다. 너 가 창피하고 외롭고 쓸쓸해도 너 가 가서 배워야 세계를 움직인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은 청중 앞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또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